

손해 우려 시 회생채권 신고 미루지 말아야



박규혁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종종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아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호하게 “그렇다”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핵심은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는 점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춰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축공사 하자 문제다.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해 인도했다면, 그 후 회생절차개시 이후

에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더라도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채무불이행의 원인, 즉 불완전한 이행 자체가 이미 회생절차개시 전에 완성돼 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모두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이 법리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신고 해태의 결과가 가혹하기 때문이다. 회생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지면, 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어 더 이상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회생절차 참가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 것이다. 이는 채권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채권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권의 발생 원인과 예상 금액을 기재해 미확정 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는 통

상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해 확정 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고 자체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또 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손해 발생의 원인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건설·제조 분야의 하자담보책임, 장기 계속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손해의 현실화 시점과 원인 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채권자가 방심하기 쉽다. 이러한 유형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일수록 거래 상대방의 회생절차 개시 소식을 접하는 즉시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회생절차에서 “아직 손해가 없으니 신고할 것이 없다”는 판단은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채권 발생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다면, 그 열매가 맺히기 전이라도 권리를 지켜야 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건을 위한 절차인 동시에, 채권자에게는 권리 행사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무대 위 정쟁, 무대 뒤 교육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는 어느 날 이상한 장면들을 목격한다. 하늘에서 조영 장비가 떨어지고, 라디오에서는 자신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그제야 그는 깨닫는다. 자신이 살아온 세계가 거대한 세트장이었다는 사실을.

흥미로운 것은 트루먼이 속았다는 점이다.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트장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점이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저 구경거리로 소비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요즘, 문득 그 영화가 떠오른다. 어쩌면 지금 교육감 선거도 비슷

한 모습인지 모른다.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교육 정책이 아니라 단일화와 진영 대결이다. 정작 교육은 무대 뒤에 있는데 우리는 무대 위 장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기초학력 지원, 학교폭력 예방, 디지털 교육, 교원 지원, 학생 복지 등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수많은 정책이 교육청을 통해 집행된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는 이상할 만큼 관심 밖에 있다.

교육감 선거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유권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후보들 역시 책임이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작 학교 안의 문제는 뒤로 밀리고, 단일화와 진영 대결, 후보 간 공방이 전면에 놓였다.

하지만 그래서 더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일화 섀범이나 진영 구도에 가려진 후보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일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감 선거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교육감은 학생들이 매일 마주하는 학교의 모습을 바꾸는 자리다. 학생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배우게 될지는 교육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트루먼 쇼’의 마지막 장면에서 트루먼은 세트장 끝에 놓인 문을 연다.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가 열어야 할 문도 다르지 않다. 단일화와 진영 대결의 장면을 지나, 누가 학교와 교실, 학생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지 직접 들여다보는 일이다.

이번 선거만큼 “누가 교육을 말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치의 소음에 가려진 교육의 목소리를 찾는 일은 결국 투표장에서 시작된다. /l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일 (음 4월 1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세요. 60년생 인생사 욕심낼 무슨 큰 소용인가. 72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큰 것이 흠입니다. 84년생 지금 당장은 귀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49년생 스스로를 조용히 위로하세요. 61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 옵니다. 73년생 검소의 미덕이 가장 좋은 상책입니다. 85년생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다툼은 금물입니다.



50년생 주위와 함께 협동하세요. 62년생 시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74년생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86년생 안일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51년생 주색을 조심할 때입니다. 63년생 고집부리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75년생 마음이 답답하니 위태롭습니다. 87년생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은 이루겠습니다.



52년생 자식중에 효자가 나왔구나. 64년생 서로의 의견이 달라 마찰이 생깁니다. 76년생 조금만 더 인내하면 좋은 결과 있었겠습니다. 88년생 자존심에 얽매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53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65년생 상대도 나만큼 알고 있습니다. 77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습니다. 89년생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54년생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하겠습니다. 66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이라 하겠습니다. 78년생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90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55년생 앞뒤를 잘 가려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67년생 소송은 매우 불길합니다. 79년생 주위 상황을 세심히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세요. 91년생 파트너와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56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겠습니다. 68년생 서쪽이 길방입니다. 80년생 마음을 바르게 쓰면 큰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산야에 봄이 돌아오니 그 빛이 새롭습니다.



57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69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81년생 옛 사람의 자문을 받아 차분히 실행하세요. 93년생 이미 발전일로 들어섰습니다.



58년생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70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82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94년생 특이한 지혜와 재치로 만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59년생 상대의 변덕이 심해 앞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71년생 흑백을 가리키는 힘듭니다. 83년생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세요. 95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세요.



김상회의四季 기후 재난

한낮의 햇살이 지나치게 강하고 잠깐만 밖에서 있어도 피부가 따가웠다. 꽃구경의 설렘이 채 가시며 낮 기온이 벌써 한여름처럼 치솟았다. 이른 더위에 외출하는 게 꺼려지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친다. 더위에 지치니 해가 갈수록 더위가 빨라진다는 느낌은 이제는 기분 탓이라고 하기 어려워졌다. 반소매 차림으로 부채질하며 지친 표정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기후 재난이 눈앞에 닥친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후 재난은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일상을 위협할 만큼 가까워졌다. 기후 재난이 물고 온 더위는 단순히 사람이 불편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노약자나 야외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기습적인 가뭄은 농작물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식비를 오르게 만든다. 무엇보다 자연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인간이 쌓아온 문명의 시스템 자체가 버티기 힘든 환경이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기후 재난은 조후가 깨진 상황이다. 조후는 명리학에서 중요한 이론의 하나로 계절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사주에서 오행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자연도 균형이 깨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돌출한다. 해가 갈수록 더위가 빨리 오는 현재 상황은 화의 기운이 과도한 것으로 본다. 특정한 기운이 강해진 자연은 작은 변수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절제이다. 소비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막아서 자연이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줘야 한다. 자연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에너지가 강해지고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생긴다. 삶을 함께 만드는 기후 재난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방법은 작은 실천에 있다. 자연의 조후는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 자연이 균형을 되찾아야 우리의 삶이 편해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3	5	6	1	8
5			1		2	9	
2			6				
			7			5	6
9						4	
5	6		4				
			8				2
	4	9		5			7
7	8	5	1	2			4

8		4		9	1		6	2
7						5		
	5	8				4		1
5				6				
2			8	9				5
				4				8
1		9				3	8	
		7						9
3	6		9	2		1		4

7	9	6	8	2	1	9	8	2
1	2	8	9	9	6	7	2	
9	2	1	6	2	8	9	2	7
2	8	1	6	7	8	9	9	7
8	7	9	2	1	6	8		
9	9	8	2	7	6	2	1	8
6	8	7	9	8	2	1	2	1
2	6	9	2	8	1	9	8	9
8	1	9	9	8	2	7	2	6

7	2	1	8	2	6	9	9	8
6	9	2	8	1	9	2	8	7
9	8	8	2	9	7	6	2	1
8	1	6	9	7	8	2	2	9
9	7	9	6	2	8	8	1	2
2	8	8	7	9	2	1	6	9
1	2	7	9	8	2	8	9	6
8	6	9	2	8	1	9	7	2
2	9	2	1	6	9	7	8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